

행복한 동행

Happy Together



사업주 및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연극> 교육 공연

"안전  문화(연극)와 함께 움직이는 세상"

CONTENT

1. COMPANY OVERVIEW

01 (사) 한국연극협회

2. 디딤돌 선정 이유

- 01 디딤돌 문화예술교육의 새이름 안전연극
- 02 지금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창조적인 투자
- 03 기업과 문화예술전문단체 디딤돌의 새로운 만남

3. 요약본

01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사업계획 및 개요

01

COMPANY OVERVIEW

01 (사)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협회 소개

1963년 1월 26일 서울에서 창립된 사단법인체로 연극예술의 창달, 발전을 기하는 동시에 연극인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연극 단체로써 구성된다. 또한 연극예술의 향상 보급 및 보존, 연극인 및 연극단체의 지도육성, 연극의 국제교류, 공연에 수반되는 재반사항 등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행한다.

현재는 등록회원 5만여명, 전국에 16개 시도 지회 및 100여개 시군구 지부(해외지부 7개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500여 극단의 단체회원과 배우, 희곡작가, 연출가, 무대예술(미술, 장치, 음향, 조명, 분장 등의 무대예술가), 프로듀서, 평론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연극인의 총집결체 구실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현황

연극제 개최

전국연극제 전국 연극인들의 화합을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의 연극경연 축제

전국청소년연극제 청소년들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규모의 연극축제

전국고마나루향토 연극제 전통문화를 회복하고 향토성 짙은 작품을 개발, 발굴하는 향토연극제

전국어린이연극 경연대회 어린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를 회복하고, 연극을 교육적 매체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1992년부터 시작됨

시상식

대한민국연극대상 2008년 '한국연극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행사로 기초 공연예술의 모태가 되는 연극의 질적 향상 및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상식

출판발행

월간 <한국연극> 발간 1976년 창간, 한국연극의 역사와 함께 해온 국내 유일의 연극 전문잡지

사랑티켓 발행 서울주관처로 복권기금과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공공지원사업

기타사업

연극인자녀장학금 / 대한민국 연극인대회 / 대한민국 청년연극인상

02

디딤돌 선정 이유

- 01 디딤돌문화예술교육의 새 이름 안전연극
- 02 지금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창조적인 투자
- 03 기업과 문화예술전문단체 디딤돌의 새로운 만남

안전 + 교육 + 문화(연극)

디딤돌
문화예술교육의
새 이름
안전 + 문화(연극)

극단디딤돌의 문화예술교육

크리에이티브그룹 디딤돌이 새롭게 펼치는
안전 + 문화(연극)

"안전 + 문화(연극)와 함께 움직이는 세상"

대한민국의 안전교육을
제대로! 재미있게!
이끍니다



지금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가장 창조적인 투자

‘안전교육, 이제는 안전연극’

1. 바른 안전교육

대한민국의 잘못된 주입식 안전교육문화에서 벗어나 제대로! 재미있게!
바른 안전교육을 실천합니다.
크리에이티브그룹 디딤들의 국내 최초 안전연극교육공연을 시작한 곳입니다.
늘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새로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2. 주체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이끌어 잘못된 미래를,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행동을 이끌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티브그룹 디딤들은 소통 중심의 한국형 안전교육공연을 개발하여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REAL 양성을 실천합니다.

3. 안전한 대한민국

제대로 된 교육은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정<기업<사회<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이끄는 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주기적인 사회공헌과 기부를 통해
공동체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크리에이티브그룹 디딤들은 대한민국 안전교육 문화를 이끍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전문단체 디딤돌의 새로운 만남

기업과 <안전교육>의 새로운 만남

- 정부 :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 발표

- 기업 :

1.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

(기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안전교육프로그램, 연극예술교육프로그램)

2. 문화예술 사회공헌 강화

(지역민과 소통하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연계)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환원)

3. <안전연극>으로 기업 혁신 교육 개발 가능

- 크리에이티브그룹 디딤돌:

1. 문화사업의 파트너

(기업과 극단디딤돌이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

2. 기업 사업의 성장단계에 맞춤형 교육 공연으로 제안

(직원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모두에게 위험 부담 없이
<안전교육>목표에 도달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03

요약본

01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사업계획 및 개요

요약본

사업주 및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교육 공연 개최

"이제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연극(문화예술)〉으로 한다"
- 연극으로 산업 안전교육을 말하다 -
2014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와 연계

안전을 실천하는 '안전의식' + 안전을 유도하는 '안전제도' + 안전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 = 〈안전연극(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안전의식' + '안전제도' + '인프라' = 〈안전연극〉 교육 공연을 활용한 안전문화 활성화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사업개요 및 계획

1. 배경 : 최초 첫 시범사업을 거치며 사업의 목적, 개념, 범위, 위상, 정책적 목표 등을 구체화 할 필요가 제기됨

2. 목적 :

- 사업주 및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의식]향상을 위한 〈안전연극〉교육을 성장 중심에 가려진 안전의식에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안전문화’ 로 바꾸기 위한 교육방법 일환(생활밀착형 안전교육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추진한다.
- 2013년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공연사업은 안전보건 자문단과 관계자, 전문예술가들의 사전 회의 및 연구를 통한 새로운 교육 방식 도입으로 근로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만큼 2014년 〈안전연극〉교육공연은 성과를 이어 관람형에서 참여형으로 바뀌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질적인 확산과 ‘안전문화’ 생활 활성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한다.

1) ‘안전, 이제는 문화다!’ 성장 중심에 가려진 안전의식을 사람중심의 행복한 ‘안전문화’ 로 바꿔야 함

‘안전문화’ 활성화 : 행복지수 향상 위한 필수조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가 스며든 일상화는 〈안전연극〉교육공연이 바라는 삶의 목적.

2) ‘안전문화’ 와 “행복한 동행” 교육공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연극〉

3) 기존 강의형태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문화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새로운 안전보건 교육 기법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화체험방식의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교육공연 활성화

한 사람 생각의 변화는 가정(기업/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님에 따라서 생각의 변화를 이끄는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교육공연을 통해 실천하는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감.

4) 타 사업과의 차별화 지점의 발견 및 본 사업만의 특성화된 발전방안 제안

전문가들을 통해 연극과 목소리로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근로자들이 평소 꿈꿔왔던 즐거운 안전교육에 대해 충족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기며 가정에서도 더욱 충실하게되어 기뻐했다는 안전교육에 대한 차별화 지점 발견.

교육생이었던 CEO역시, 앞으로 이런 교육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이 관람형에서 참여형으로 바뀌어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발전방향 제안.

5) 단계별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안전연극>교육공연의 실질적인 확산과 ‘안전 문화’ 생활 활성화와 생활 정착을 꾀함

3. 목표 :

1) <안전연극> 사업단 운영

안전보건 자문단 구성 및 관계자 자문회의

2) 안전보건 인식 제고사업(<안전연극>교육공연 창작 작품)

시나리오 창작 및 감수(3회) 1편

3) 안전보건 인식 제고사업(<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교육공연 개최)

5개 권역(*각 2회 공연) 안전보건교육

찾아가는 공연(*전국)

4)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념식 행사 연계공연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공연: 창작뮤지컬 갈라쇼

시나리오 창작 1편

음악 창작 2곡

4. 사업 추진방법

사업대상 : 사업주, 근로자대표, 지역주민 안전보건관계자 등 전국민

- **관람대상 : 사업주 · 임원 · 현장소장, 노조(근로자) 대표 · 담당자, 근로자 가족,
안전 및 교육 담당부서장, 안전 · 보건관리자,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등**

추진방법 : > 수기체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교육] 향상을 위한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교육공연으로 안전문제 상황, 즉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사전조사를 한 후 시나리오 작업함.

> 시나리오는 전문 작가에게 의뢰하고, 연극내용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연극자문단에 검토 및 감수 의뢰.

>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내용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공연 중간에 수시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관객 참여, 호응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세밀한 분석)

>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가족이나 지역주민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하며 진한 감동을 통해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작품으로 구성.

> 관람자가 '안전을 위하여 주변인들에게 관람을 추천하는 수준' 의 내용으로 구성.

+ 지역주민 관람 시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고취와 더불어 문화예술체험의 효과를 목표.

+ 직원 단체관람 시,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

공연개요 : □ 공연명 : "행복한 동행"

□ 장르 : 연극 (창작극)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극]

□ 공연일정 : 제1차 공연 - *제47차 산업안전강조주간 행사 연계 개최

광주 6월 27일 (금) 빛고을시민문화관 4시 / 7시

울산 6월 30일 (월) 북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 4시 / 7시

부산 7월 2일 (수) 부산예술회관 소극장 4시 / 7시

대전 7월 3일 (목) 서구관저문예회관 4시 / 7시 30분

서울 7월 7일 (월) COEX컨퍼런스룸 401호 1시 / 3시 30분

□ 관람료 : 전석무료

□ 관람등급 : 만 7세 이상

□ 러닝타임 : 90분

□ 제작총괄 / 크리에이티브디렉터 : 신바람

□ 예술감독 : 임대일

□ 극작 : 김희자 (드라마작가/극단디딤돌 상임작가)

□ 연출 : 정재호

□ 출연 : 이원종, 임대일, 이주화, 김늘매, 이훈국, 신정만, 안소림, 이규원, 박건태.

작가의도 :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루고자하는 꿈, 사랑, 신념, 가족....

아니면, 그저 어떻게든 살아내야하는 인생이라서?

당신이 삶을 통해 이루려는 가치가 무엇이든 그것은 '행복' 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면하고자해도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참으로 알수 없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잡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하니까요.

불행이란 놓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운이없었다거나, 변덕스러운 신의 잔인한 장난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위로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불행에는 나자신, 혹은 우리의 잘못이 숨어있다는 것을...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시할 때 나와, 당신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네 이웃의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극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라는 목표를 넘어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행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손 내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장인물 : 안전만 (남, 50대) / 이원종



건설 근로자. 미장팀 작업 반장.

무뚝뚝하고 뻘뻘한데다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거칠다

유일하게 관심있고 좋아하는 건 술 뿐이다

과거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현재 그의 이런 모습이 낯설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같긴 한데 본인 얘기를 하는 것도 묻는 것도 자독히 싫어하기에 모두들 의아해 할 뿐이다

심세기 (남, 50대) / 임대일



일용직 근로자. 잡역부.

전만이 일하는 현장에 온 첫날부터 전만과 바람 잘 날이 없다

전만이 아무리 모질게 대해도 묵묵히 참을 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전만에게 눌러 지낸다

하지만, 전만과는 어릴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사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동료들의 의혹에 찬 시선과 온갖 소문의 대상이 된다

나중식 (남, 23세) / 이규원



대학생 알바. 잡역부. 보육원 출신 고아.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입학, 현재 휴학중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학하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다

어린 나이지만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러나 되바라지거나 닳아빠지지 않고 순수하고 밝으며 속이 깊은 청년이다

등장인물 : 김양순 (여, 40대 후반) / 이주화



함바집 주인.

거친 노동자들을 오래 상대해서인지 한마디로 '세다' 하지만, 정의롭고 따뜻하며정이 깊다
오래전에 상처하고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또순이
혼자 힘으로 온갖 풍상 겪어가며 사느라 자신이 여자란 사실도 잊고 살았는데
요즘 무뎡뎡하고 멋대거리없는 전만에게 자꾸 맘이 쓰이는 자신이 당황스럽다

공태만 (남, 40대 후반) / 김늘메



전만의 작업 조원. 미장공.

윗사람에 아부하기 좋아하고 수다스러우며 제 잇속 챙기는데n LTE급 으로 빠르다
귀찮고 힘든 일은 남의 일, 편하고 쉬운 일만 내 일이다
그래도 인정은 있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

후 안 (남, 30대 초반) / 신정만



필리핀 출신 근로자.

한국에서 일하며 하도 이유없이 욕을 먹고 살아서인지 느끼는 것은 욕과 비속어 뿐이다
공태만의 천적으로 늘 티격태격한다

등장인물 : 철 규 (남, 23세) / 박건태



전만의 아들, 대학생.

자신을 낳고 나가버린 엄마대신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다

전만에겐 아들이자, 친구이며, 때론 잔소리쟁이 마누라 같은 자식이었다

군 제대후 복학을 앞둔 어느 날, 사고로 죽었다

지 혜 (여, 24세) / 안소림



양순의 딸, 소방관.

양순이 홀로 되어 키운 외동딸로 엄마를 닮아 당차고 야무지다

1인 다역 / 이훈국



현장 관리 소장, 인부, 안전관리자, 소방관...

줄거리 : 여름, 무더위 속, 한 신축 건물 건설 현장.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체조와 교육, 구호로 이어지는 지루하기 짝이없는 아침 안전 조회를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전만의 표정이 폭발할 것만 같다. 드디어 조회가 끝나고, 전만은 거친 욕을 내뱉는다. 그가 이렇게 건디기 힘들어하는 건어제도 술독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거의 매일 술이다. 걱정하는 동료의 말도 무뎌뚱뚱하게 무질러버린다. 전만이 숙취로 요동치는 속을 달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 소장이 새로운 일꾼들을 전만의 작업조에 데리고 온다. 조용한 인상의 중년 남자 한 명과 전폭 긴장한 뒷덩이 애송이다. 중년은 세기, 애송이는 중식. 조원들끼리 가벼운 인사가 오가고, 잠시 후, 작업장으로 돌아와 뒤늦게 신입 일꾼들을 본 전만의 얼굴이 굳는다. 당혹.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는 전만의 시선. 그 시선은 세기에게 쏠려있다. 세기 또한 전만을 보고 당황하는 가색이 역력하다. 세기에게 이곳엔 왜 왔냐고 당장 까지라고 말하는 전만. 고개를 숙인채 아무 말도 못하는 세기. 전만의 밀도 끌도 없는 분노에 동료들은 아라둥질하기만 하고, 급기야 전만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완력으로 세기를 끌어낸다. 다신 얼씬거리지말라며 경고하고 돌아서는 전만에게 세기는 이곳에서 그냥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세기의 말에 폭발한 전만은 결국, 주먹까지 날린다.

세기를 내보려고 전만은 소장과 협상해보지만 소장은 전만의 요구를 일축해버린다. 일당을 미리 담겨 술과 도박으로 탕진한 전만은 소장의 협박과 회유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세기를 받아들인다. 이에 전만은 세기가 제발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를 차갑고 혹독하게 대한다. 그러나, 세기는 제 발로 나가기는커녕 대가리 한 번 하는 법없이 늘 잠자코 당할 뿐이다. 당하기만 하는 세기가 딱하기는 하지만 전만의 고약한 성질머리를 알기에 동료들도 눈치만 볼 뿐 모르는 체 한다. 다만, 그들은 전만과 세기의 관계가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사이였고, 전만이 왜 그렇게 세기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세기는 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지... 그 사이 둘을 둘러싼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해져 간다.

장마가 시작 되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작업을 중지하게 된 일꾼들은 합바집에 모여 대기하면서 월드컵 중계를 시청한다.

그러던 중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전만을 찾아 중식과 일꾼들이 찾아나서는데, 전만은 그들과 엇갈려 합바집에 들어선다.

그리고, 합바집에 홀로 남은 세기를 보고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또다시 주먹을 날린다. 갑작스런 전만의 행동에 모두들 당황하고, 전만을 말려보려하지만 광기어린 전만을 막기가 힘들다.

그런데, 전만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다. 전만의 아들을 세기가 죽었다는 것.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에 합바집 안은 충격에 휩싸이고, 그런데 잠시 후, 폭발음과 함께 현장에서 화재가 난다.

전만을 찾아 현장으로 갔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모두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세기도 나간다. 그러나, 전만은 홀로 패닉 상태로 꼼짝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자 발버둥쳤던 아들의 사망 사고가 오버랩 된다.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였으나, 비극적 사고로 인해 원수가 된 두 사람,

세기와 준만, 이제 이 두 사람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관람포인트 : <안전연극> “행복한 동행” 관람 포인트 3가지?

1. 재미

안전을 주제로 하면서도 흥미와 웃음이 있어야 함.

작품의 주제와 산업현장에서 힘들고 위험한 일 등 소재가 가볍지 않기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을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웃을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코미디요소들을 충분히 살려 줌.

작품의 카타르시스와 감동에 극대화를 위한 요소로 재미에 포인트를 둠.

2. 메시지

산업현장이 얼마나 안전해야 하는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후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댓가와 아픔에 대한 현실적인 사실들을 공연을 통해 관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유도하여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피해가 없도록 강한 메시지를 작품 안에 진솔하게 전달함.

*거친 남자들의 드라마

혹~ 끼쳐오는 사내들의 후끈한 땀 냄새, 이런 남자들의 세계가 “행복한 동행” 에서 그리고자 하는 주축의 무대,
또 사내들의 거칠고 뜨거운 건설현장과 같은 세계를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구현! 안전교육 안전연극의 새 지평을 열음.

*화려한 드라마

“행복한동행” 의 주된 배경이 되는 건설현장은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그 이면에 서민들의 모습이 드라마 안에 조화됨.

3. 감동

공연 관람 후 내용과 장면이 오래 오래 기억되도록 진한 감동을 줌.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술로써의 연극작품이 아닌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신파적인 최루성 작품을 만들어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쉽고 대중적으로 극을 만들어 극의 사건 안에
관객 자신이 배우와 함께 하나가 되어 체험적인 연극이 되게 함.

5. 기대효과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의 부대행사 다양화 및 전국적인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안전문화 불 조성에 기여

- 사업주 및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연극을 통한 새로운 문화적, 감성적 접근으로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 모델을 개발

〉 안전의식 제고와 연극방식의 새로운 안전보건 교육 모델 확산.

〉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감성경영 기법과 안전보건 교육을 연계하는 모델로 정착 가능.

+ 비즈니스 소통 커뮤니티 교육으로 〈안전연극〉 발전 가능 (신규시장 개척)

- 안전보건의 주제가 사업주, 근로자,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하고 재미있고 가치 있게 다가가는 계기를 부여

〉 다양하게 변화라는 근로자의 수요에 적합한 〈연극〉이라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안전교육에 접목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이끌어 감.

5. 기대효과 : 제47회 산업안전 강조주간 연계행사 <안전연극> - '행복한 동행'



감사합니다